

광주시·전남도, 호남 유일 환경산업전 연다

제13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14~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국내외 110개사 230부스...대·중·소기업간 구매·해외 수출상담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호남 유일 환경산업 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연다.

사·도는 오는 14~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위해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 주제관은 글로벌 환경산업 이슈와 정책을 반영한 공기산업, ESG실천기술, 수처리기술, 자원순환, 미래생활관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110개사에서 230부스를 마련한다.

주요 참여회사(기관)은 기아자동차, 예코프로에이치엔, 케이아이에코시스템, 테라바이오, 알엑스오그립, 광주환경산업협회 등이다.

공기산업관에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방역계이트와 공기안전트레이터를 마련하고, ESG실천기술관에서는 대형 태양열접시 등을 선보인다. 미래생활관에서는 아열대작물 재배관과 전기차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상담을 통해 환경산업 성장을 돕기로 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대·중·소기업 상담회에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시장 내 특설룸에서는 광주시 공사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부대행사로에는 광주·전남 지역기관과 중앙 공공기관을 초청한 물관리 심포지엄, 클린홈을 위한 미세먼지 제거 및 실내 공기질 유지방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등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텀블러 세척기, 커피찌꺼기,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자원순환 체험, 업사이클링 소품 체험, 폐자원을 활용한 아크릴 모형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휴게공간도 폐현수막, 골판지 책상을 이용한 색다른 공간으로 조성된다.

2009년 시작한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2012년 기후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국제전시회로 성장했으며, 2018년에는 신규 수출전시회, 2020년에는 유망수출 전시회로 인정받았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지역 환경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성평등을 향한 여성 5일 광주시 동구는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 회장, 회원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및 여성화한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고대역사 '마한 복원·세계화' 첫 국비 확보

전남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17억 포함"

남도의 고대를 장악한 마한의 역사를 정리하고, 마한의 유산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5일 "2023년 문화재청 예산안에 한반도의 고대역사 '마한' 관련 예산을 최초 반영, 찬란했던 마한 역사의 복원 및 세계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내년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 2억원), 마한 중요유적 발굴·조사사업(15억원)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마한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한 민선7기부터 '마한 복원 및 정비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채

택하고, 정부의 각종 유적 정비사업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전남의 분류 고대사 마한의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된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다. 아카이브와 교육·전시 시설 등을 갖추고, 앞으로 마한 복원과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센터 건립 적지와 핵심 기능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마한 중요유적 발굴·조사비는 전남 곳곳에서 방치돼 개발공사 등으로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는 마한 유적의 보존과 정비 예산이다. 2023년 8대

역사문화권 중 마한과 탐라를 우선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마한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가치 규명과 정비사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마한사 복원과 세계화에 필요한 정비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지금껏 소외받았던 마한 역사의 복원사업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내년 예산도 확보된 것은 한반도 고대사의 일부로서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마한 복원사업이 지역민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 민중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실상 폐쇄결정' 지산IC 위험도 지표 확보한다

광주시 용역 착수... 내년 3월 후 개통여부 결정

광주시는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 평가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중 기관을 선정해 빅데이터 분석, 교통 시뮬레이션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년 2~3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개통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 보고에서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폐쇄(개통 불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바로 결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먼저 확보하기로 한 만큼 이번 용역도 인수위의 폐쇄 결정 방침을 밝히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산 IC는 양방향 총 길이 0.67km, 폭 6.5m로 개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6억원),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71억원)가 맡았다.

계획 초기 오른쪽 진출 방식이 적용됐지만, 인근 주민 등 민원이 발생하자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성이 제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유일 '행복동지사업' 호응

차상위계층 등 노후 주택 보수...2016년부터 872가구 지원

노후 주택 보수가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전남도의 '행복동지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복동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바닥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 시설과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된 2017년 행복동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현재까지 총 872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다.

사업비는 2018년까지 순수 지방비로 충당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돼 2019년부터는 매년 복

권기금 20여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26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약 17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전남건축사회 등 전문가 협조를 얻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개·보수를 하는 만큼 혜택을 받은 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건설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올라 낡은 집을 고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행복동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만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